북스

Books

詩情으로 더욱 빛난 '대륙 5천년'

위치우위의 중국문화기행 1·2

"중국 산천은 시체가 즐비한 전쟁터이자 수레와 배가 왕래하는 낙토(樂土)이기도 하다. 또한 봉건시대 권력자들이 생명의 불을 환하게 밝히거나 꺼지게 했던 곳이자, 시인들의 위대한 생명력이 한껏 위세를 발휘할 수 있도록 비호했던 곳이기도 하다. 가련한 백제성(白帝城)은 너무도 피곤했으리라. 이른 새벽, 이백의 배를 떠나보내고 저녁이 되면 유비 무리의 말발굽 소리를 맞이해야했을 것이다."(1권 164쪽)

장강(長江)이 가로지르는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싼샤(三峽)의 백제성에 이른 위치우위(余秋雨·61)는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접했던 이백(李白)의 시와 전쟁에 패해 백제성으로 퇴각했던 유비를 떠올리며 이렇게 적었다.

중국의 유명 예술평론가이자 문화사학자 위치우위가 쓴 '위치우위의 중국문화기행'(전 2권)은 1992년 중국에서 첫 출간된 이래 1천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다. 중국인들로부터 '현대의 루쉰'이라는 칭송을 받는 저자가 중국의 구석구석을 둘러본 뒤 쓴 기행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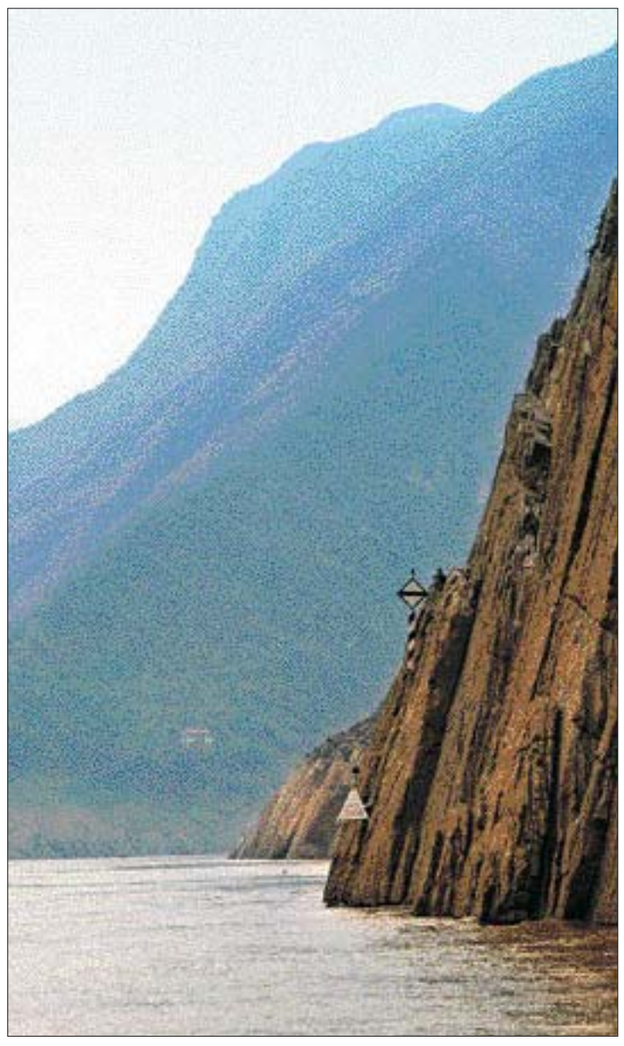
여행의 궤적은 '북에서 남으로'다. 저자는 출발점으로, '사라진 문명의 도시' 아틀란티스와 앙코르와트를 떠올리며 발해(渤海)의 수도였던 흑룡강성 영안시의 옛 상경 용천부 궁전터를 둘러본다.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인, 지금 발해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친 채 당(唐)나라와는 다른 별개의 문명국이었다고 말한다.

1권에서는 발해 유적지에서 란저우(蘭州), 둔황(敦煌), 황저우(黃州), 난징(南京) 등을 거쳐 남부의 하이난(海南)섬까지 역사의 긴 발자취를 더듬는다. 2권은 중국어판 제목 '심중지려(心中之旅)'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단순히 공간에 따른 구분이 아닌 고향과 타향으로 나눠 마음 속의 여정을 그렸다.

백제성을 흐르는 장강에서 이백과 유비를 떠올렸던 저자는 타향으로의 장강을 다시 만나 "자부심과 일종의 시름"을 느낀다. "산맥으로 막힌 아득함은 절망이지만 강물로 통하는 아득함은 시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장강은 자신의 길고 긴 길이로 인해 중국 문화에 그처럼 많은 근심과 시름을 가져다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녁 바람은 더욱 처량하고 강 안개는 더욱 짙고 백로는 강을 가로질러 나는 것이 아닐까."(2권 214쪽)

저자는 중국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이나 저자 개인의 이야기들이 스민 곳 등을 지나쳐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흔적과 그 흔적을 남긴 문인이나 영웅호걸들, 그리고 추억 등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한다. 흔히 말하는 '무서운 중국'의 수식어는 중국의 오랜 역사 만큼이나 깊은 울림의 글에서도 느껴진다.

〈미래인·1권 1만6천원 2권 1만4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위치우위는 장강이 흐르는 쌴샤에서 이백의 시(詩)와 유비의 말발굽 소리를 떠올린다.

동물농장·해리포터…명저 20권 탄생 뒷얘기

아주 특별한 책들의 이력서 릭 게코스키 지음

1988년 살만 루시디의 '악마의 시'가 발표되자 이슬람 지도자 호메이니는 '악마의 시'의 저자와 그 내용을 알고 출판한 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천명했다. 이후 작가는 무사했지만 책의 이탈리아어 번역자와 노르웨이어 출판업자가 공격 받았고, 일본어 번역자는 살해당했다.

1950년대 출간작으로 제레미 아이언스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는 40대 중년 남성이 12살 소녀의 성적인 매력에 빠져드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미국의 한 출판업자가 "앞으로 천년 동안 돌덩이에 눌러둬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발표 당시 논란을 일으켰던 이 작품은 여러 출판사를 전전한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J.K 롤링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전세계 65개 언어로 번역돼 2억 3천만원권이 팔렸고 저자의 수익은 2천억원에 달했다. 출판사들도 대박을 터트렸고, 책 표지 디자이너도 1억5천만원을 챙겼다.

영국의 초판본 수집가이자 문학박사인 릭 게코스키가 쓴 '아주 특별한 책들의 이력서'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20권의 책의 발간 과정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특히 국내 독자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초판본 수집의 세계와 관련한 이야기들은 독자들의 색다른 호기심을 자극한다. 부르는 게 값인 유명 저서의 초판본, 특히 저자의 사인이 들어 있는 초판본이나 저자가 또 다른 명사에게 보내는 헌사를 써놓은 '수택본(手澤本)'을 구입하려는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은 흥미롭다.

저자가 직접 '율리시즈' 등 유명 저작의 초판본을 구입하는 과정과 살만 루시디의 또 다른 책을 펴내며 겪었던 에피소드,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톨킨의 명작 '호빗'과 얽힌 사연, '호밀밭의 파수꾼'의 저자 J.D 셀린저와 얽힌 송사 등도 눈길을 끈다.

책은 그밖에 베아트릭스 포터의 '피터 래빗 이야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D.H 로렌스의 '아들과 연인',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 등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르네상스·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 눈높이 맞춰 '토지' 동화로 나왔다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가 동화로 다시 태어났다.

이번에 출간된 것은 '동화 토지' 1부 10권. 1~3부 각 10권, 4부 3권, 5부 4권, 별책부록 1권 등 모두 38권으로 이뤄진다. 토지문학연구회가 엮고, 허 구씨가 그림을 그렸다.

어린이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원작소설과는 다른 텍스트가 된 '동화 토지'는 단순성, 반복성, 구술성 등 동화의 문법을 충실하게 구현했다. 이를 위해 낯선 어휘, 방대한 스토리, 역사적 사건 등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다.

'토지'는 박경리가 1969년 집필을 시작, 26년만인 1995년 5부로 완성한 대하소설로 엄청난 분량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한 것이 사실. 토지문학연구회는 '동화 토지'가 한국 문학사의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잠재 독자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룸·각 권 9천700원〉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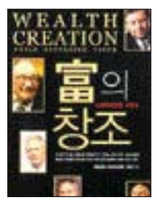
▲살인의 역사=영국 작가 케이트 앳킨슨의 장편 미스터리소설로 그 해 여러 잡지에서 '올 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세 가정의 슬픔과 고통, 그 치유과정을 그렸다. 아내와 이혼한 사립탐정 잭슨 브로디는 비슷한 점이 많은 세 사건을 의뢰받는다. 〈노블마인·1만2천원〉

▲탄트라의 길=독일 작가 울리 올베디가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한 비구니의 삶에 비춰 쓴 장편소설. 작가 역시 수행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서인지 묘사가 섬세하고, 티베트 불교 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생생하다. 소설이지만, 가슴 깊이 울리는 진리의 메시지가 강렬하다. 〈조화로운삶·1만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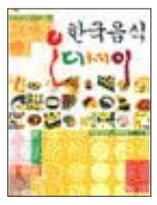
▲한국의 美 산책='철학하는 화가'로 알려진 국립 한국전통문화학교 최선호 교수가 지난 2005년 5월부터 30개월 동안 매달 떠났던 문화기행을 마치고 남긴 사진과 글들을 모았다. '자연과의 조화', '역사 속 인물과의 조우', '화려한 건축물에의 예찬' 등으로 나뉘었다. 〈해냄·2만8천원〉

▲집으로 가는 길=세계적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편집팀장을 지낸 사진작가 에드워드 김(본명 김희중)의 '카메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156컷의 사진과 함께 1950년대를 서울에서 보낸 작가의 어린 시절과 외국 잡지에서 일하며 겪은 이야기 등이 그려졌다. 〈한길아트·2만8천원〉

▲조선/한국의 내셔널리즘과 소국의식=일본 고베대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기무라 간 교수가 한국의 민족주의를 파헤쳤다. 저자는 조선/한국의 내셔널리즘의 핵심은 '소국의식'이었다고 말한다.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사상을 통해 학문적 논증을 시도했다. 〈산처럼·2만8천원〉



▲부의 창조=매일경제 산하 '세계지식포럼 사무국'이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FRB(연방준비은행) 의장,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 등 글로벌 리더들이 제시하는 부 창조 노하우를 담았다. 이들은 '아시아', '웹2.0', '금융', '인재육성' 등을 주목하라고 강조한다. 〈매일경제신문사·1만4천800원〉



▲한국음식 오디세이=호서대 정혜경 교수가 우리나라 음식을 통한 문화 읽기를 시도했다. 한식(韓食)을 다양한 기준으로 나눠 전통음식과 우리 삶의 관계를 모색하고, '도문대작', '규합총서' 등 한식 요리책의 고전으로 꼽히는 고(考)조리서들을 소개한다. 〈생각의나무·1만2천원〉

▲거상의 혼(전 3권)=중국 작가 주슈하이가 쓴 장편소설. 혼란스러웠던 청나라 말기 산서(山西) 지역에서 근대 은행시스템과 물류유통 체계의 기반을 닦은 실존인물 교치용(喬致庸)의 일대기를 그렸다. 그는 '의(義), 신(信), 리(利)'의 상업 질서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진다. 〈에버리치홀딩스·1만1천800원〉

▲만보객 책속을 거닐다=시인·소설가·문학평론가·방송인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장석주씨의 세 번째 서평집. 특유의 깊이 있고 사색적인 시선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김훈의 '남한산성', 박완서의 '호미' 등을 치욕, 연륜, 환상 등 60개의 키워드로 풀어냈다. 〈예담·1만5천원〉